



제26-01517호  
(2026.04.02~2027.04.01)



#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## 기술 진화에 따른 변화

소셜 미디어, 쇼핑, 엔터테인먼트, 금융, 사물인터넷, 전기차 등  
기술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


AI와 로봇이 업무와 생산 효율에 기여하며  
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

# 전 세계적인 투자 기회



미국의 대표적인  
기술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 
주도하고 있지만

중국을 비롯한  
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이  
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



유럽에서는  
다양한 전문 소프트웨어가  
개발되고 있습니다.



## 철저한 리서치와 전문성이 필요한 시장 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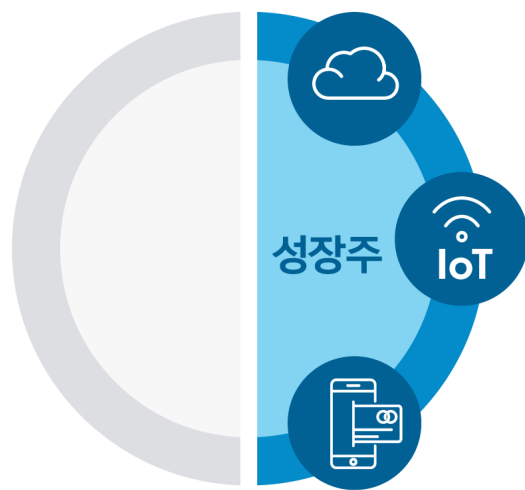
하지만, 관세, 정부정책, 규제,  
과열 우려, 기술 추세 변화 등  
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투자해야 합니다.



#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 - 리서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축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

서로 다른 위험·보상 특성을 보이는  
50-10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균형을 추구합니다.

**50% 이상**  
장기 승자 기업 중심의  
성장주에 평균 3년 이상  
투자합니다.



**30%까지**  
경기 민감 종목에  
평균 1.5년간 투자해  
기회를 추구합니다.

내재가치 대비  
주가가 오류를  
보이는 종목에도  
투자해 초과성과를  
추구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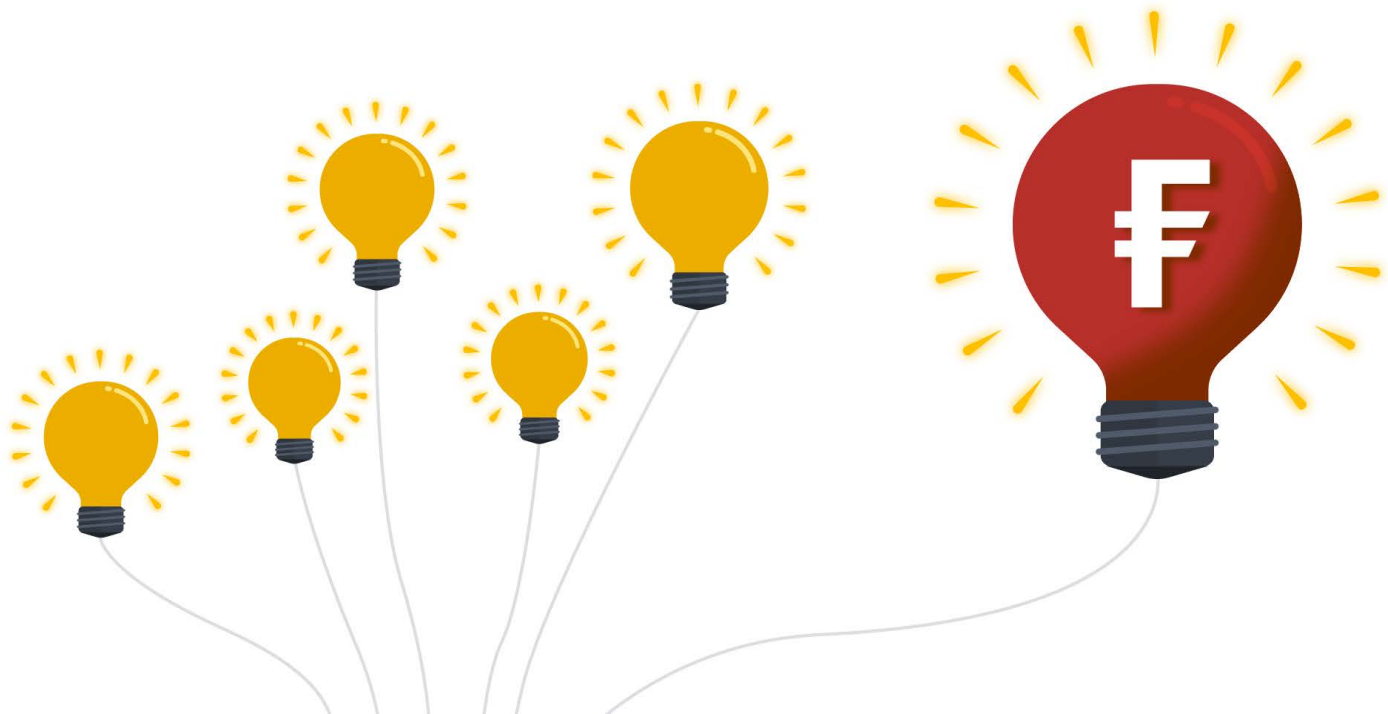


#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 -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기술주 펀드

진정한 글로벌 시각으로 운용되는  
확장된 범위의 기술주 펀드



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,  
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는 투자 솔루션입니다.



# 펀드 개요

<b>펀드명</b>	<b>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b>				
<b>투자목적</b>	기술진보 및 기술향상을 제공하거나 이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는 상품, 공정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장차 이를 개발할 전세계 기업의 주식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함				
<b>상품유형</b>	주식형, 개방형, 추가형, 모자형, 종류형, 재간접형	<b>위험 등급</b>	2등급 (높은 위험)		
<b>환헤지 방식</b>	환율변동 위험에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100% 수준				
<b>종류구분</b>		<b>종류 A</b>	<b>종류 C1</b>	<b>종류 CP (퇴직연금)</b>	<b>종류 PRS</b>
<b>수수료 (%)</b>	<b>선취판매수수료</b>	1.00 이하	없음	없음	없음
	<b>환매수수료</b>	없음			
<b>보수 (%)*</b>	<b>집합투자업자</b>	연 0.10	연 0.10	연 0.10	연 0.10
	<b>판매회사</b>	연 0.70	연 1.20	연 0.50	연 0.60
	<b>수탁회사</b>	연 0.04	연 0.04	연 0.04	연 0.04
	<b>사무관리회사</b>	연 0.022	연 0.022	연 0.022	연 0.022
	<b>기타 비용</b>	연 0.0133	연 0.0133	연 0.0133	연 0.0133
	<b>합성총보수 비용*</b>	연 1.9653	연 2.4653	연 1.7653	연 1.8653
	<b>증권 거래비용*</b>	-	-	-	-
<b>매입</b>	17시 이전 신청 시: T+2일 (3영업일) 기준가 적용, 17시 경과 후 신청 시: T+3일 (4영업일) 기준가 적용				
<b>환매</b>	17시 이전 신청 시: T+2일 (3영업일) 기준가 적용, T+5(6영업일)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신청 시: T+3일 (4영업일) 기준가 적용, T+6(7영업일) 환매대금 지급				

2025년 9월 30일 기준

\* 직전 회계연도: 2024년 6월 17일 ~ 2025년 6월 16일 기준

\* 합성총보수 비용: 피투자펀드 총 보수비용 연 1.09%로 추정

-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100%까지 (역외펀드) Fidelity Funds - Global Technology Fund에 투자합니다.
- 연금형 펀드의 경우 연금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) 과세 등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■ 판매사는 이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. ■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■ 집합투자기구는 자산가치변동, 환율변동 등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■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 ■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■ 미국인은 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. ■ Fidelity, Fidelity International, Fidelity International 로고 및 F 심볼은 소유권자인 FIL 리미티드의 허가를 받아 사용되었습니다. KM26-18(2026.04.01~2027.03.31)